

3월의 사양관리

❁ 축산연구소

일반 사양관리

봄 이 되어 겨울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고 농사철을 준비해야 하는 경칩이 이번 달 초순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봄이라고 하더라도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와 황사가 불어오는 계절이므로 일기불순에 의한 호흡기 질병 및 사양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따뜻한 날에는 운동장 사정을 고려하여 일광욕을 시키면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사 내부청소 및 소독을 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환절기 일교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온도관리를 해주되 밀폐에 의한 환기불량으로 호흡기 질병 발생 및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통풍이 잘되게 해주고, 하순경에는 보온 덮개 및 비닐 등을 제거한다. 봄이므로 송아지는 내부보다는 외부 사육시설로 옮기도록 하고 습하지 않도록 청소를 자주 해 주고 건조한 깔짚을 자주 교체해 주며 송아지 사육시설은 소독한 후 햇볕에 잘 말려 사용토록 한다. 조사료 재고량을 파악하여 호밀 등 청예가 생산되기 전까지는 조사료 부족이 없도록 한다.

사양관리

젖 소의 발굽은 몸을 지탱하고 발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생산성과 사용년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타이스틀과 후리스틀 등과 같은 제한적인 축사체계와 더불어 적절한 예방적 발굽관리가 젖소의 발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젖소의 생체리듬이 점차 회복되는 시기이므로 동절기 동안 발정이 없었던 개체들에 대하여 운동 및 첨가제, 일광을 충분히 활용하여 발정이 정상적으로 오고, 수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후보축으로 사용할 육성우는 반추위 등 소화기관과 골격을 충분히 발달시켜 튼튼한 착유우로 만들기 위해서 배합사료는 제한급여하고 건초 등 양질의 조사료를 자유급여 한다. 특히 사료와 물은 젖소가 원할 때 항상 섭취가 가능토록 해 주고, 사료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해준다. 보유하고 있는 우군의 건강을 점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젖소군이 쉬고 있을 때 쉬고 있는 소의 몇 %가 반추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쉬고 있는 젖소들의 최소한 50%가 반추활동을 하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건강한 우군이라고 평가하여도 무방하다. 각 축군별로 충분한 사조공간을 확보하여 사료섭취 공간 미확보에 따른 먹이다툼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착유우의 경우 두당 최소한 60cm, 4~8개월령 육성우는 15cm, 17~21개월령 육성우 사조는 45cm길이가 되도록 해 준다.



방역 및 위생관리

그리고 정상적인 반추위내 미생물의 활동 및 산도 유지를 위해 조사료를 먼저 급여하고 배합사료는 가능한 횟수를 늘려 급여한다. 그러나, 산유량만 근거한 농후사료의 지나친 급여는 사료값 인상에 의한 경제성 뿐만아니라 소 유기 관리에도 오히려 손해다. 경영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육성우 관리 및 착유우 관리에 신경을 쓴다. 착유중인 소는 변화에 민감하므로 배합사료나 조사료를 바꿀 때에는 반추위내 미생물이 새로운 사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15일 이상에 걸쳐 서서히 바꾸도록 한다.

5 이 되면 어떠한 가축질병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사전에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사전 자체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목장입구에 설치된 분사식 방역장비를 가동해 보고 노즐이 막히거나 균열로 새는 곳은 없는지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목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안내문을 붙이고 실제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계절변화에 의한 송아지의 호흡기 증세와 설사 발생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어린 송아지의 경우 찬공기가 바로 송아지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깔짚을 충분히 깔아주고 낮에는 외부온도 상승에 의한 가스 발생이 높으므로 환기에 신경을 쓴다. 신생송아지는 질병 및 영양공급을 위해 분만 후 최대한 빨리 초유를 급여하고 분만우는 스트레스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및 사양관리에 주력한다. 특히 송아지 설사는 육성우 사양을 하는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이며 그 발생 빈도와 증상은 아주 심각하다. 설사 증세를 보이는 송아지는 증상이 심해지면 탈수, 체액내 전해질 농도의 불균형, 체조직과 혈액내 산 과다 등으로 인해 허약해지고 심하면 폐사한다. 설사로 폐사하는 송아지는 설사보다 탈수, 산중독증, 전해질 불균형과 저혈당증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설사 증세가 보이면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기계작업 전에 수리를 신속히 한다. 또한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대형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장비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장비가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살펴야 한다. 각종 오일점검, 브레이크 및 각종 부착장비의 연결부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없애야 한다. 해동 후 땅의 수분이 말라 작업이 가능할 작업이 가능하므로 3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목초파종 및 손상된 초지에 보파하되 3월말을 넘지 않도록 한다. 3월 하순경에 연간 시비량의 1/3 정도를 시비한다. 또한 안정적인 낙농경영을 위해 최대한 자가 생산 조사료 량을 늘려갈 계획을 세운다. ㉞

초지 및 사료작물